

불황에도 끄덕없는 블루오션 벤처 아이템을 낚아라



불황이다. 지금이야말로 벤처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10년 전 IMF 위기를 벤처정신이 앞장서서 돌파해 나갔듯이 다시 한 번 뚝쳐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히 도전하는 진정한 벤처정신이 발휘될 때이다. 독보적인 기술력 혹은 튀는 아이디어로 불황에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불황에 강한 벤처 아이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_ 송현호

_ 신기술 & 원천기술

불황에는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벤처정신이 요구된다. 아무도 개발하지 않았던 신기술과 원천기술개발은 불황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효자아이템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원천기술을 전 세계에 파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이나 LG보다 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바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인 것과 같은 원리다. 원천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는 휴대폰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아이파이사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다운받는 번거로움을 없앤 기술을 개발해 '대박'을 터트렸다. 이 회사는 카메라의 SD카드에 Wi-Fi를 내장하여 무선으로 사진을 전송하고 위치정보

를 입력하여 사진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USB 케이블도 필요 없고 앉아서 사진을 다운받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불편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벤처정신이 만들어낸 성공작이다.

_ ODM

ODM(제조업자설계생산방식)은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이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생산하는 OEM이 아니라 자신만의 디자인, 기술노하우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ODM 회사들은 대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데다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을 구매할 때도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원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고부가가치형 생산체제다. 화장품 ODM 업체로 유명한 코스맥스는 로레알 등 전세계 80여개 글로벌 기업으로 수출하여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다. ODM은 불황에도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여 & 중고용품

불황에는 고가의 설비를 구입하기 어렵다. 빌려서 사용하거나 중고제품을 들여놓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런 요구가 커지면서 대여, 중고용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중고용품 가게인 '리사이클 시티'는 매달 1,200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강남지역의 특성상 중고용품 가게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깬 사례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온라인 쇼핑물

온라인 쇼핑물 창업도 거세다.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물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 실제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 가운데 3분의 1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여파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물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엔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들이 홈페이지 디자인에서부터 전자결제시스템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창업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매월 2천 개가 넘는 개인쇼핑몰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니 꽤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IP TV와 게임 & 디지털 홈

불황에는 어디 외출을 하기도 겁난다. 웬만하면 집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평일 동안 못 본 TV를 주

말에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는 IP TV와 게임 등 디지털 홈 관련 아이템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러닝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이러닝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기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명품 & 프리미엄 제품

고가의 명품이나 프리미엄 제품은 불황을 타지 않는 아이템으로 유명하다.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품은 불황에도 잘 팔리는 법. 벤처기업들이 명품 반열에 오르기란 쉽지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명품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도 많다. 3D스캐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이너스기술은 토종 기술로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최근 일부 젊은층이나 부유층 사이에서 고가의 수입 프리미엄 생수도 인기다. 비교적 경기에 둔감한 20대 젊은층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아이템이라면 내년에도 시장에서 거뜰히 선전할 것이다.

유아용품

유아용품도 불황을 타지 않는 아이템. 요즘 유아용품들은 바이오, 웰빙, 신소재 제품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신기술을 반영한 유아용품이라면 불황에도 엄마들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

에너지 절약형 제품은 불황에 더 인기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커지기 때문. 신기술로 무장한 초절전형 가전제품이라면 불황도 거뜰히 이겨낼 것이다.

